

금오공과대학교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토론회 직원 단체 질의서

<2021. 6. 직원협의회, 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노사협의회, 산학협력단노사협의회>

1. 대학 전체 대상 정책토론회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통합에 대응하는 우리대학의 전략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의 미충원 사태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 2.7배가량 늘어 16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추가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속출하였고, 일부 거점 국립대에서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이며, 이로 인하여 신입생 미충원, 대학 재정부실, 경쟁력 약화, 대학간 통·폐합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벚꽃이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지방대학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일부 국립대는 이미 통합을 하였거나 통합을 검토하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일부 사립대는 폐교 수순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은 주변대학과 비교할 때 준수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당장 올해, 5년 후, 10년 후 신입생 충원 결과와 우리 대학 경쟁력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약화, 대학 통합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이며, 향후 우리대학의 10년 후 모습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10년 후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재임기간 중의 로드맵(청사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호3번 이재원 후보의 답변

그동안 우리대학은 국립대학, 저렴한 등록금, 높은 취업률, 특성화 공과대학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인 우리대학의 생존 방법은 **작지만 강한 특성화 공과대학**뿐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 했습니다. 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독자생존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체질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 방안이 바로 **로봇과 에너지 분야의 특성화**입니다. 특성화를 통하여 **대학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최고조로 올려놓아야 독자생존**이 가능하며, 어느 순간에 쓰나미처럼 닥쳐올지 모르는 통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차기 총장들께서 우리대학을 MIT와 같이 작지만 더 큰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